

성 토마스 성체 찬미가

옆디어 절하나이다.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,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
우러러 뵈올수록 전혀 알 길 없습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.

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. 천주 성
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.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.

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. 인성을 둘
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.

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앓사오니 언제나 주
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.

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,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, 제 영혼 당신으로
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.

사랑 깊은 펠리칸, 주 예수님, 더러운 저,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.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
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.

예수님,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
주 뵈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.

아멘.